

Si기반 탄소섬유 후처리제 기술 확보

미적용 화학물질 추천 최적의 조합 얻을 수 있어 고품질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개발 기간 단축 기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탄소섬유 후처리제 예측모델을 통해 소재 자립화를 이룰 기술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예측모델은 탄소섬유의 품질 향상에 사용되는 후처리제 개발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화학종, 분자량 등 유기소재의 물성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 비율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특히 연구자들이 시험해왔던 물질 정보와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미적용 화학물질들을 추천 최적의 물질 조합 및 배합비율을 빠르게 얻을 수 있어 고품질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전주시 전라북

도와 협력해 연구개발 중인 후처리제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료 정보화 응용 선도업체의 플랫폼을 활용해 AI 학습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00% 수입에 의존해왔던 상용화 제품과 유사한 수준의 후처리제 레시피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유기·고분자 물질 기반의 AI 예측모델 개발은 금속이나 무기계에 비해 물질의 다양성, 복잡한 공정 조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기술개발로 고분자 재료정보 및 소재개발 분야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적의 탄소섬유 후처리제를 위한 원소재 물질 및 배합비율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가운데)과 융복합연구본부 소속 김성룡 수석(오른쪽), 한문희 책임이 탄소섬유 후처리제 테스트 장비 앞에 서있다

방윤혁 원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탄소소재 개발에 있어 디지털 혁신과 소재 공급망 자립화를 동시에 실현할 선도적 모델"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전북현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전은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예금' 오늘부터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전북현대모터스FC'의 우승을 기원하는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예금'을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한다.

17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금리는 최대 12개월 연 2.30%며, 기본금리 연 1.20%에 최고 우대금리 연 1.10%를 제공한다.

우대 금리는 전북현대모터스FC가 리그에서 우승한 경우 연 0.30%, 리그에서 16승 이상 했을 경우 연 0.20%,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만기해지일 까지 종이통장을 미발행 한 경우 연 0.20% 예금 가입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0.20% 마케팅 등 의고객 연 0.20%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2022시즌 K리그 전북현대FC 축구 팬들의 응



원 분위기 조성, 전북현대FC의 6연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용도별 고품질 품종개발 확대 · 품질 안정성 향상 재배기술 개발

농진청, 밀 자급률 향상 위한 전략 세우 생산단지에 '국산 밀 재배 품질관리 지원단' 운영



정부가 연간 소비량이 320만~370만톤에 달하는 밀 자급률을 2025년까지 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최근 기후변화 및 대내외 국제 정세로 곡물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정세로 인해 밀 관련 식비가 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 0.5% 정도로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기술개발과 현장 보급 전략을 추진해 밀 자급률 상승 정책에 기여할 계획을 밝혔다.

17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 따르면 밀 생산단지에 '국산밀재배 품질관리지원단'을 운영해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국산 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퍼센트 내외인 밀 자급률을 2025년에는 5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육성기 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헥타르)의 절반을 고품질 밀 전문단지로 조성한다. 여기에 맞춰 지원단은 2025년까지 국산 밀 생산단지의 확대 조성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우선 매년 생산 단지에서 기후, 토양, 재배조건, 수량, 품질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품종 선택, 비료주기·물관리, 수확후관리 등 생산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품질 밀 생산관

리 기술을 설정, 환류(피드백)하는 종합적 기술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번 지원단의 중점 추진 업무는 ▲전국 밀 생산단지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생산단지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수량·품질 변이 요인 분석 ▲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안내서 발간 및 재배품질관리기술 환류이다. 이를 통해 생산 단계별 품질과 수량 저하 요인에 따른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땀이 면을 품질 기준에 맞는 1등급 밀 생산 비

율을 높여 국산 밀 품질 고급화를 주도한다. 또한 올해부터 겨울철 이후 계속되는 가뭄 같은 재해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시기별 핵심기술을 지원하며, 전국 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농진청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장기술지원단'을 3월부터 6월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농진청의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 전략은 ▲용도별 고품질 품종개발·보급 확대 ▲품질 안정성 향상 재배기술 개발 ▲국산 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밀 중심

이모작 재배기술 확대 ▲밀 소비기반 확대로 세웠다.

농진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품질·가공·소비 분야 연구시설이 강화된 첨단 세대육성 시설을 갖춘 연구동을 신축했다. 또한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술개발 전략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심포지엄)를 18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기술개발 전략과 국산 밀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 국산 밀 발전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전북 부안의 우리밀 생산전문단지에서 밀을 생산하는 유재홍 농업인은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 설립으로 국산 밀 재배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수매등급의 밀을 많이 생산해 국내 식량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유종철 원장은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은 국가 식량 계획의 중대한 과제"라며 "국산 밀 품질 경쟁력 확보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밀 생산단지에 관한 현장연구와 기술지원을 강화해 밀 자급률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 대상 완주에서 신일 해피트리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완주에서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는 신일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653-3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13세대(확정추천 9세대+예비추천 4세대)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며, 중기청 조정평가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v.kr/sanha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세정 적극 펼칠 것"

이판식 광주국세청장 전주상위서 세정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광섭)는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7층 대회의실에서 17일 개최했다.

이번 세정 간담회는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코로나19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에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외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소거가 있었으며, 참석한 상공인들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요청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차별세율 시정·후 요건 완화 ▲차별세율 처리 시 조세대상 연도 축소 ▲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 맞춤형 안내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오미르



17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 모습. (사진=전주상의 제공)

론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전북 지역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윤광섭 전주상의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수렴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 '산지유통 혁신 2022 프로젝트' 선도모델 후보조직 발굴을 위한 담당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산지유통 혁신 선도모델 후보 발굴

전북농협, 산지유통 대변화 촉진 위한 토론회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산지유통 대변화 촉진을 위해 '산지유통 혁신 2022 프로젝트' 선도모델 후보조직 발굴을 위한 담당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주관인 이 사업은 전국 산지의 자발적·도전적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농협 중심의 산지유통 대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수취가 제고, 생산비 절감' 고도화 선도모델 20개 유형에 부합하는 조직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북농협은 선도모델 20개 유형에 부합 가능한 우수조직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조합공공사

법인 사업추진 전략회의 개최를 이어서 이번 사업 담당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의 우수조직에 선정된 농협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혁신 대상(시상금 1,000만원), 산지유통종합자금 10억원 추가지원, 각종 표창 및 특별승진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국에서 20개 조직만 선정되는 산지유통혁신 2022 프로젝트에 도내 다수의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상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북 지역 산지유통 혁신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농식품 국제신뢰도 향상 · 수출확대 도모

식품연, '해외인증 등록 지원' 참여업체 모집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호)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국제신뢰도 향상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인증 등록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17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심사비, 컨설팅비, 교육비 등이 지원되며, 지원비용은 업체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방식은 수출성장을 갖춘 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보유업체에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수출준비도가 높은 수출예정 업체에도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신청은 해외식품인증정보 포털(www.fooderi.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정보제공, 기술지원, 분석지원 및 인력양성 등의 지원사업도 수행 중이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인호 식품산업연구본부장은 "지나치게 달성한 역대 최대 농식품산업의 수출실적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외인증등록지원은 물론 수출업체의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소비자 특성 및 시장동향 조사, 및 감각평가지원 등 수출시장 진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